

목면(木綿)과 면포(綿布)의 참뜻

조 환(영남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무릇 인류의 역사는 섬유산업의 역사와 나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찬란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은 옷을 입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옷감의 종류는, 지역·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양질의 섬유소재(纖維素材)를 얻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이 “고대문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문명발상지 중의 하나인 “황하(黃河)유역”에는 絛(누에고치를 물에 담가 풀어낸 가는 솜)의 원료인 잠견(蠶繭)에서 얻은 잠견사(蠶絹絲)와 마섬유(麻纖維)를 사용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India-Indus 강 유역에는 이른바 목면(cotton)섬유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또 Africa와 Europe 지역에는 아마(亞麻)와 양모(羊毛)섬유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은 역사적 사실로서 자타가 공인 하는 바입니다¹⁾.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인류가 생활함에 있어 「의·식·주(衣食住)」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감의 원료인 “섬유제조기술”은 인류역사와 함께 면면(綿綿)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이용해 온 섬유는, 자연에서 산출된 “자연산 섬유”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섬유의 역사적인 논의는 “자연산 섬유” 모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나, “자연산 섬유”의 역사에 관한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모두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 글에서는 동양 3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면서, 그 역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면(綿)”이란 말의 의미부여를 잘못함으로써, 한일(韓日)간의 역사가 왜곡되어 통용되고 있기에, 목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2. “면(絛)”과 “면(綿)” 그리고 목면(木綿)

한자(漢字)의 원천은 China의 漢(한)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漢字(한자)의 원전(原典)으로 알려져 있는 「說文解字」²⁾와 「강희자전(康熙字典)」³⁾을 근거로 하여, 낱말의 뜻을 정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으로, 동양 3국에서는 그 자전(字典)들을 근거로 하여 제각기 쓰기에 편하도록 “한자자전(漢字字典)”을 편찬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면(綿)을 목면(cotton)”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낱자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자전(漢字字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後漢의 永元11년(1000년)에 편찬된 「說文解字(설문해자)」에 나오는 고대 “絛”자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그림1)²⁾.

「설문해자(說文解字)」가 편찬된 시기에는, China에 木綿(cotton)이 재배되지 않은 시대였지만, 이때에 이미 絛(면)자가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서 면(絛)은 “cotton”과 무관한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쓰던 絛(면)자의 뜻은 “이어 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누에고치에서 풀어져 나오는 “김실(繭絲)”처럼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나오는 “길고 긴 형상”에서 유래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를 한 보기로 들어 봅시다. 「綿綿히 이어져 온 귀댁의 가문…」, 「綿綿히 이어져 온 5,000년의 찬란한 역사」 등의 표현에서, 만약 “綿자”가 cotton을 뜻했다면 「귀댁 가문은 동강동강 난 보잘 것 없다」는 뜻이 되어 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욕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5,000년 긴 역사가 아닌 토막 난 역사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Corresponding author. Tel.: +82-53-350-3762; Fax.: +82-53-350-3888; e-mail: sojang@dyetec.or.kr

두말할 것도 없이 “綿자”는 누에고치에서 풀러나 오는 길고도 긴 “김실(綿絲)을 뜻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綿(면)자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綿(면)자는 청(淸)나라의 강희55년(1717년)에 편찬된 「강희자전(康熙字典)」에 면(綿)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풀이되어 있습니다(그림 2)³⁾.

이어서 “棉(면)”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棉(면)”자는 앞에서 인용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사전(字典)인 「說文解字(설문해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대(漢代)에는 없었던 글자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희자전(康熙字典)」

典에서 “棉”자를 찾아보았습니다(그림 3)⁴⁾.

보시다시피, “棉”자는 “木綿樹名” “有草實如繭中絲” 즉 “목면(木綿)이 달리는 나무의 이름이고, 열매는 누에고치에서 얻는 실과 같다”라고 명백히 풀이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淸代(淸代)에 편찬되어 현재 한자사전(漢字字典)의 원전(元典)으로 알려져 있는 「강희자전(康熙字典)」에서도 “면(綿)”은 “솜(silk)”을 뜻하고, “cotton”은 “목면(木綿)”으로 표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⁴⁾.

이로서 “면(綿)”이란 “솜(silk)”을 뜻하고, 목면(木綿)이 “cotton”을 뜻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림 3. 「강희자전(康熙字典)」 “棉”

3. 목면(木綿, cotton)이라는 용어의 유래(由來)

목면(木綿, cotton)은 고대 India의 Indus 강 유역(BC 2500~1500년경의 고대문명발상지 중의 한 곳)과 BC 3500~2500년경에 번성하였던 Mohenjo-Daro 유적지(현 Pakistan의 Sind 지방 남쪽)와 South America의 Peru에서 4,500~5,000년경 전부터 재배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⁹⁾.

고대 India의 Indus 강 유역에서 재배되었던 "cotton"을 기원전 327년 Alexander 대왕의 India 원정 때에 지금의 중동지역으로 가져 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동시에 "cotton 재배기술"도 Egypt에 까지 전해진 것입니다⁹⁾. cotton은 열대산 식물이라서 그 북방 재배한계는 북위 40°근방인 지중해에 면한 반도와 그 근방의 도서(島嶼)이었습니다⁹⁾.

한편, 서양역사의 원전이 되고 있는 기독교의 "성서에 나오는 염색과 직물"이라는 논문을 인용해보면, "cotton"은 지리적인 상황으로 보아 Israel에서도 재배되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성서"에는 "cotton"에 관한 기록은 한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불확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¹¹⁾. 따라서 "cotton"은 India가 원산지임을 다시 확인해 주는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rope 언어인 영어에 India 원산인 "katan"을 뜻하는 용어가 있을 수 없으며, 영어의 "cotton"은, India 말의 "katan", Arabia 말의 "솜"을 뜻하는 "Kutan"에서 유래된 용어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⁹⁾.

China에 "cotton"이 전래된 것은, 불교가 전래된 역사적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전해 듣고 알고 있기로는, 고대 China의 승려들이 불법구도(佛法求道)를 하기 위해서 India 유학을 할 무렵, China에는 없었던 "katan" 즉, 「풀·나무에 달린 면(縣, silk 솜)처럼 생긴 값진 진귀(珍貴)한 것을 발견하고, 그 씨앗을 가져와서 재배에 성공하여 붙인 이름이 "목면(木綿)"이며, 후에 "목면(木綿)"으로도 적었고, 새로이 "棉"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China에 없었던 "cotton"을 누에고치에서 얻은 "솜(綿)"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면(木綿)"이라고 이름을 지어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¹¹⁾.

4. 조선(朝鮮) 시대의 한일(韓日)무역에서 거래되었던 상품

우리나라에 목면이 들어온 것은, 고려 말(1363)에 「문익점(文益漸)선생께서 "원(元)나라"(현재의 China)에서 귀국하시면서 "붓 대롱" 속에 목화(木花) 씨앗을 감추어 가져와 목화재배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 처음으로 목화재배에 성공했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림 4. 忠宣公三憂堂文益漸木綿遺田表

대구광역시에서 멀지 않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탑리"라고도 함) 제오리(提梧里)에 가보시면, 초라하지만 옛이야기를 고증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한 자그마한 비석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 하여, "忠宣公三憂堂文益漸木綿遺田表"입니다⁶⁾. 이 초라한 비석이 있어, 우리나라 백성들도 이른 바 "무명베" 옷을 처음으로 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Japan 섬유학계에서 유명한 梶 慶輔 (KAJI KEISUKE)교수의 논문을 한 번 더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면, 「Japan에서 목면제품을 조선으로부터

터 다량 수입되게 된 것은, 室町(Moromachi)시대 (1338~1573)이고, 목화(木花)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게 된 것은 15세기의 중반부터였으며,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생산량이 증대되어 겨우 일반서민들도 무명베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⁵⁾.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⁷⁾.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를 여기서 발취하여 소개해 드리면, 「對馬島(TSUSHIMA)를 지배하고 그 당시의 Japan 무역의 실권을 장악한 “宗貞國”의 특견인(特遣人)이었던 “職宣”은 황금 26근 40푼(수는 대소 134挺), 주홍(朱紅) 300이(裏), 구리 1,100근 등을 가지고 와서, “每歲應求以賜其價直 其愈丘山猶重 絹布麻布之類 吾國本所有也 但木綿無有 因以純望木綿察之且”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이 문장의 뜻을 간추려 보면, “견포(絹布)와 마포(麻布)는 Japan 에도 있으나 목면(木綿)은 없으므로 목면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의 2월에 그가 귀국할 때, 황금과 주홍 및 구리 등의 대가로 무명베(木綿布) 1,0906필26척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와서 무명베만을 구입해 간 기록들이 있습니다^{8,9)}.

여기서 Japan 학자들의 뿔뿔하지 못한 사례들 가운데서 손쉽게 찾은 것 하나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吉田孝次朗교수는 SEN'I GAKKAISHI의 “纖維と工業” 난에 기고한 글에서 「歲遣船(세견선)을 지배한 對馬(대마도 주)는 永年9년(1512) 이후, 朝鮮과의 교역을 독점하기에 이른다. 수입품은 불전(佛典)과 불구(佛具), 은기(銀器), 인삼, 저포(苧布), 견(絹), 호피(虎皮), 표피(豹皮), 잡채화석(雜菜花席), 만화석(滿花席), 채화석(彩花席)등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¹¹⁾.

독자 여러분! 가소롭지 않습니까? 그 당시 歲遣船(세견선)이라 함은, “대마도 주에게 세종대왕(25년, 1443년)이 50척으로 제한 운영토록 허가 하였다.”라는 조선왕조실록이 있는데, 근세조선과 Japan (德川幕府)과의 사이에서 거래되었던 무역물품의 품목을 열거하면서, “무명베와 도자기”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Japan 고대사서에 기록으로 나오는 “면포(綿布)의 바른 뜻이 “silk fabrics”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듯, “면포(綿布)를 “cotton fabrics”로 우겨대어, Japan에는 고대로부터 목면이 있었던 것으로 기만하려는 그들의 저의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고유의 “목면”과 “무명베” 용어를

바로 찾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조선조(朝鮮朝) 초기까지 왜인(倭人)들은 그 당시 조선으로부터 수입해 갈 수 밖에 없었던 “무명베”와 “조선자기(朝鮮瓷器)” 그리고 “금속활자(金屬活字) 제조기술”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임진란에 얽힌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日本文部省과 扶桑社가 공모하여 “JIS 規格審議委員會”의 위원들을 교체해가면서까지, “木綿”을 축소하여 “綿”으로 사용한다는 구실로 연막전술을 펴면서 “木”자를 때어버리고 “綿”자로서 “木綿”을 대신하게 하여, 삼국시대의 역사서에 적혀있는 “綿布(silk fabrics)”를 “cotton fabrics”로 통용케 함으로써, 왜(倭)국에 목면(木綿)이 사용되었던 역사를 천년이나 앞당겨서, 임진란 때 “조선의 무명베 산업기술”을 납치해 갔던 조선인(朝鮮人)으로부터 배웠다는, Japanese로서는 치욕적이라고 생각되는 과거사를 왜곡시켜 왔던 것입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綿(면)”을 “cotton”으로 기만하고, 삼국시대의 綿布(silk fabrics)라는 기록을 “cotton fabrics”라고 우겨대며, 억지로 綿(silk 솜)의 본뜻을 바꿔치기 함으로써, 임진란 당시에 처참하게 잡혀가서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Nishizin-Ori (西陣^織)”의 원조가 된 조선의 무명베기술 장인들의 원혼을 짓밟고, 약탈의 만행을 음폐(陰蔽)하려고 기만적인 잔피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¹¹⁾.

5. 맺음말

필자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Japan 국비유학생”으로 유학하면서 섬유공학을 전공하였는데, 저 역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면(綿)”을 “cotton”으로 배운 그대로, 귀국 후 교단에서 제자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 글로서, 저로 말미암아 잘못 알고 “면(綿)”을 “cotton”으로 오용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송구한 뜻을 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부디 “cotton”은 “목면(木綿)” 또는 “무명”으로, 그리고 목면포(木綿布)는 “무명베” 등으로 바로잡아 사용해 주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 西陣(Nishizin)이란 그 당시 Japan의 수도이던 京都의 서쪽 편에 위치한 (지금의 KOBE 뒷산 넘은 분지), 조선인 “납치 기술·장인 수용소”를 관리·운영했던 “병참진지”였다는 구전이 있다고 함¹¹⁾.

끝으로 綿布(면포)라는 말은 삼국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용어로서, “김실로 짠 비단 (silk fabrics)”을 지칭하던 말이었는데도, 이 용어를 “cotton fabrics”로 잘못 사용하는 것은, 이미 역사왜곡의 비겁한 마수의 실상을 들어낸 “광개토대왕 비문 변조”와 “칠지도(七支刀)의 음각 문 조작”, 왜인들이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통치했다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 설의 날조”, 우리국토이던 간도(間道) 땅을 滿洲에 편입시켜버린 “Shimonoseki (下關) 조약”, 그리고 최근의 “독도 문제” 등, 오늘날 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르기까지 Japan의 제국주의 사고의 근성을 노출시키고 들어내고 있는 극우파 Japanese들의 기만적인 농간에 놀아나는 결과가 됨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한때 Japan 제국주의의 재물이 되었던, 우리의 쓰라린 과거사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익숙해져버린 왜곡된 역사적 잔재를 “일상 생활용어”에서부터 털어버리고 떳떳하게 새로운 세기를 열어 나아갑시다.」라고 외치는 바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고증자료입수에서부터 한문 번역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문경현 박사와, 문장작성에 있어 조언을 해주신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신중규 자문님, 그리고 원고 정리에 수고한 우화령 연구원을 비롯하여 이 글을 쓰게끔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적어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인용문헌

1. 中島路可, *SENTI GAKKAISHI(纖維と工業)*, 58, (11), 282(2002).
2. 「說文解字」, 第十二篇下, 六十二 (後漢, 永元 11년, 1000년 편찬, 世界最古의 字典).
3. 「康熙字典」, 卷之九, 絲部, 九畫, 六十二 (康熙 55년, 1717년 편찬).
4. 「康熙字典」, 卷之五, 絲部, 7畫, 八畫, 四十八 (康熙 55년, 1717년 편찬).
5. 梶 慶輔, *SENTI GAKKAISHI(纖維と工業)*, 59 (4), 121(2003).
6. 忠宣公三憂堂文先生木縣遺田表,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소재, 1909.
7. 朝鮮王朝實錄, 卷 250, 成宗21年12月(甲戌條).
8. 朝鮮王朝實錄, 卷 267, 成宗23年12月(甲戌條).
9. 朝鮮王朝實錄, 卷 250, 成宗22年2月(庚戌條).
10. 吉田孝次朗, *SENTI GAKKAISHI(纖維と工業)*, 51(6), 264(1995).
11. HWAN CHO, *SENTI GAKKAISHI(纖維と工業)*, 63(1), 23(2007).